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인기그룹 동방신기 일본 광고모델 데뷔

인기그룹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TV광고 모델로 데뷔한다.

동방신기는 최근 도쿄에서 열린 건강음료 '오로나민C'(오츠카제약)의 새 TV광고 발표회에 메인 모델로 활동해온 인기 배우 우에토 아야(23)와 함께 참석했다.

동방신기는 11일부터 TV광고로 방영될 '아카펠라 신기'편에 출연, 연이은 서류복사 실패로 의기소침한 회사원(우에토 아야 분)을 자신들의 히트곡 '어째서 너를 좋아하게 되어 버렸을까?'의 아카펠라 리듬에 맞춰 "어째서 너는 복사에 실패해 버렸을까"라는 가사로 격려한다.

한편, 한류스타 배용준도 지난 2004년 건강음료 '오로나민C'의 TV광고에 출연, 그해 광고 호감도 6위에 올랐다.

9년만에 뭉친 '세 친구'

'세 남자'로 돌아왔다

3세남자

18일 tvN 첫 방영

"9년 전 '세 친구' 찍을 때와는 달리 이제 어른이 된 느낌이에요. 그 때 중학생이던 제 딸은 어른이 됐고, 저는 또 아내와 아기가 생겼죠. 전에는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더워도 주변이 더 더울까봐 덥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어른이 된 거죠.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게 '성장통'이었던 것 같아요."

18일 밤 11시 첫방송을 시작하는 tvN '세 남자' 제작발표회에서 윤다훈은 지난 9년을 돌아보며 그 동안 '성장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 "괜히 나이 먹고 나와 안되면 어쩌나 고민 좋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연기할 겁니다"

박상면 윤다훈 정웅인

자유연애를 즐기는 골프 코치를 연기하는 윤다훈(45)은 연기 면에 있어서도 "단순히 카메라 앞에 서는 '연기자'에서 진짜 '배우'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라며 좀더 사실적이고 어른스러운 연기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세 친구'에서 '세 남자'로 오면서 겪은 성장통이 연기 속에 숨어 있을 것이라는 것.

어른이 됐다고 느낀 것은 윤다훈만은 아니다. 정웅인(38)은 결혼 이후 일과 삶에서 모두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기니 행복함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가족들을 위한 책임감이 생기고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아기에게는 좀더 좋고 비싼 '유기농 분유'를 먹이고 싶은 것 같은 거죠. 얼마 전 경주에서 촬영을 마친 뒤 운전하고 올라오는 길에 졸음이 밀려오는데 문득 두 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생각하고 정신 차려 무사히 올라왔어요."

정웅인은 특히 최근 MBC 드라마 '선덕여왕' 촬영과 뮤지컬 공연 등으로 '세 탕'을 뛰고 있어 바쁘지만 "바쁜 만큼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기에 있어서도 "가족을 생각하면서 연기에도 신중함을 더 갖추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세 남자'에서 노총각 칼럼니스트 역을 맡은 정웅인은 "'세 친구'와 캐릭터는 많이 비슷하지만 이번 작품이 '세 친구'의 연장선은 아닐 것"이라며 "웃음과 아픔, 사랑 등 30대 후반 남성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를 밝은 터치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 잘 믿고 정이 많은 골프웨어숍 사장 역을 연기하는 박상면(45)에게도 9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갔을 리는 없다. 그는 "그 동안 여러 편의 시트콤과 드라마를 하면서 배우로서의 삶을 잘 다진 것 같다"고 입을 뗐다.

그러나 박상면은 '성장통'에 대해 묻자 "가능하면 행복하고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저라고 왜 고민이 없겠어요? 저보다 연기 잘 하는 사람 보면 대단해 보이고, 연예인으로서 식구들과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는 아픔도 있죠. 하지만 연기는 계속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시청자분들이 관심 보여주시는 건 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덕분이겠죠. 오히려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9년만에 만나는 '세 친구'의 주인공들은 '세 남자'에 대해 처음에는 부담이 많았지만 이내 적응했다고 밝혔다.

윤다훈은 "바로 지난 주에 찍고 다시 만난 것 같았다"면서 "편안한 연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웅인도 "윤다훈 씨와 박상면 씨가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줘서 익숙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했다"고 말했다.

박상면은 "왜 부담이 없었겠느냐"고 반문하며 "예전에 잘 됐던 좋은 이미지에 괜히 나이 먹고 나와 안되면 어쩌나 하는 고민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그는 이어 "첫 대본을 보고 정말 재미있어서 작가님께 고맙다고 했다"며 "좋은 친구들과 좋은 작품 정말 열심히 하려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강지환 이름 내걸고 日서 프로그램 진행

배우 강지환이 일본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강지환은 최근 도쿄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류전문채널 엠넷(Mnet)의 리얼 쇼큐멘터리 '강지환의 어느날 어딘가에서…'의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 "일본 팬들이 한국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우리말까지 배우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일까, 알고 싶어서 이런 여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행지는 일본의 전통문화가 깃든 곳이나 대자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 팬들의 기억에 남는 곳과 찾아주길 바라는 곳을 직접 물어서 골랐다"며 "도쿄에만 와서 홋카이도와 다른 지방의 문화는 거의 모르는 백지상태이다. 직접 찾아 눈으로 보면 상황이 넓어질 거고 거기에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또한 "여행 도중 어떤 만남과 해프닝이 기다리고 있을지 긴장되지만, 사실 신칸센 등 이동할 때 옆자리에 예쁜 여성과의 만남이 꿈이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 '7급 공무원'을 찍을 때부터 시작한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후반부에 계획된 온천 촬영을 위해 트레이너도 데리고 와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다"며 몸짱 강지환의 육체미에 대한 기대를 부풀게 만들었다.

강지환이 일본 전국을 여행하며 아름다운 자연과 신비로운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강지환의 어느날 어딘가에서…'는 30분물로 총 20회 제작돼 오는 9월 26일 첫선을 보인 뒤 내년 2월까지 방송된다.

여행지 선정을 위해 실시된 '강지환이 방문했으면 좋은 곳, 권하고 싶은 곳' 의 모집에는 5천 통이 넘는 응모가 쇄도했다. /연합뉴스